



지구관측: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1조 달러 시장 기회

Deloitte Insights



한동현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AI와 지구 관측 기술의 융합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 관측 데이터 시장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2기가톤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글로벌 지구 관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구 관측(EO), 데이터를 통해 지구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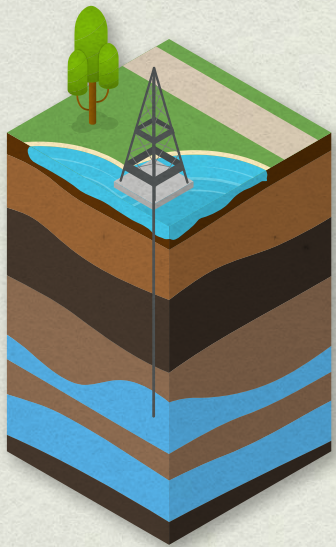
지구 관측이란?
(Earth Observation)

- ✓ 항공기, 드론, IoT, GPS 등을 활용해 지구의 변화와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
- ✓ 지난 10년간 EO 데이터의 규모·품질·활용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 AI 솔루션과 융합하여 환경 변화, 도시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인사이트 제공
- ✓ 기후 변화 분석, 정밀 농업, 청정 에너지, 스마트 시티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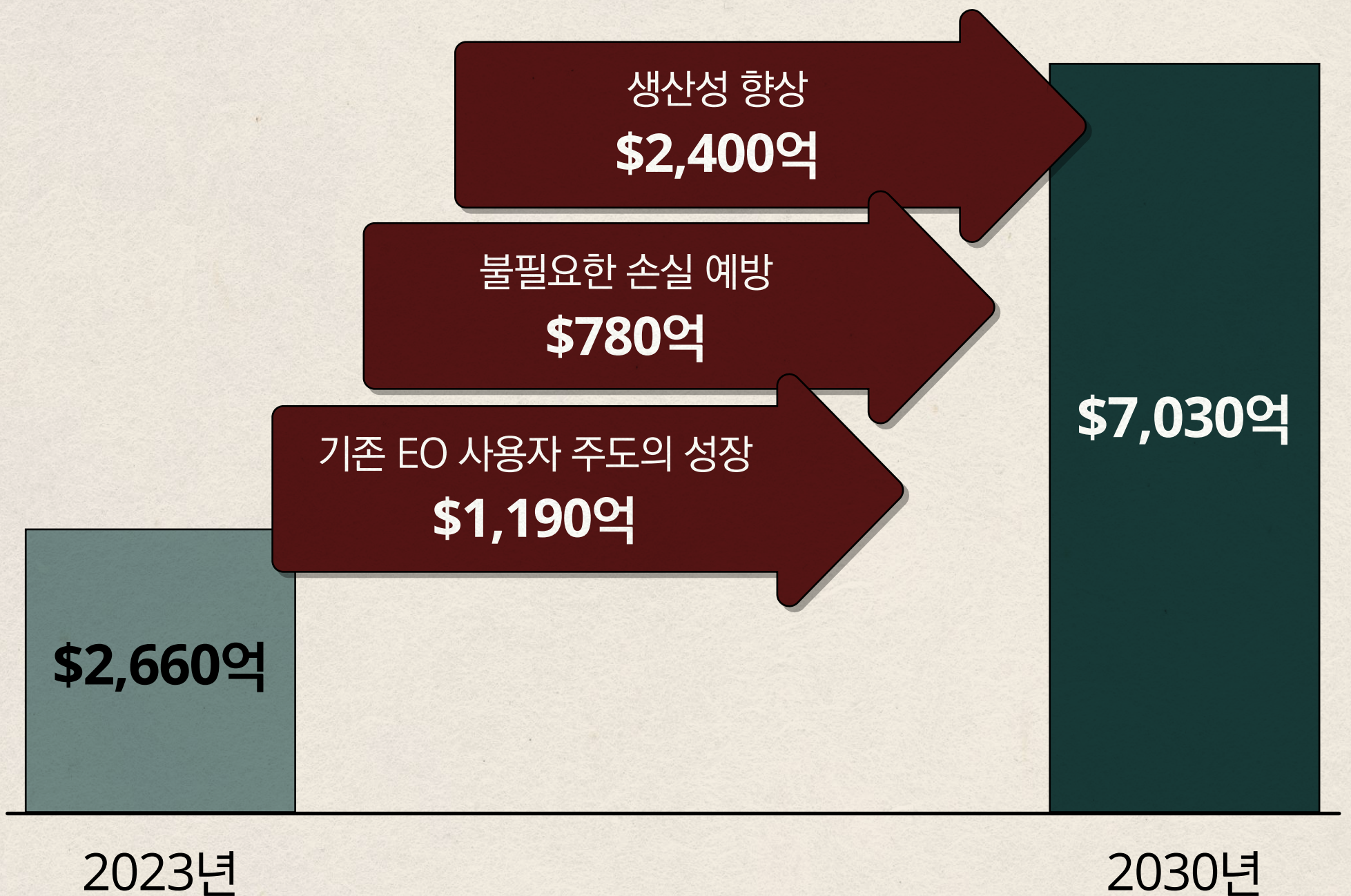
상세한 내용은 글로벌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지구 관측(EO) 데이터



- ✓ EO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030억 달러 성장 전망
- ✓ 글로벌 GDP 기준, 약 3조 8,0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전망

지구 관측 데이터의 가치



출처: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Deloitte

지구 관측이 혁신하는 6대 산업

2030년까지 지구 관측 데이터가 창출할
총 가치의 94%는 아래의 6대 산업에서 발생 전망

산업

잠재적 경제 가치



1. 농업

\$3,990억



2. 광업, 석유 및 가스

\$1,080억



3. 정부, 공공 및 응급서비스

\$470억



4. 전기 및 설비

\$470억



5. 공급망 및 수송

\$35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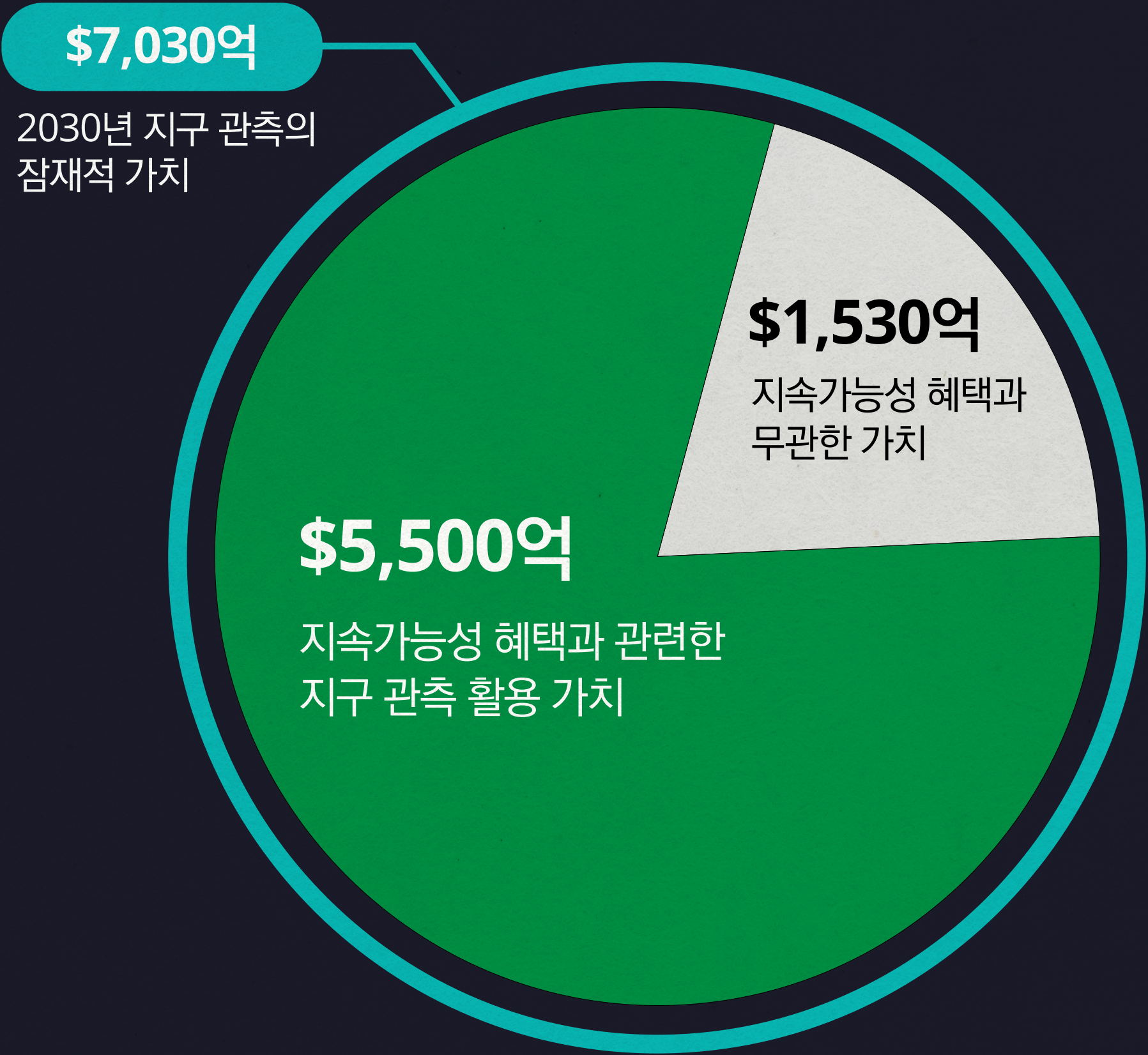


6. 보험 및 금융서비스

\$2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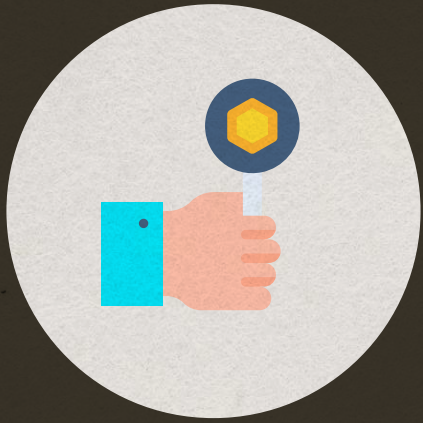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동시에 창출 가능

- ✓ 2030년까지 EO 전방산업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 민간·정부·시민사회 모두 EO 데이터를 활용해 이중 가치 실현 가능
- ✓ 주요 기회: 자연자본 보호, 기후변화 적응, 배출 감시 및 완화



출처: World Economic Forum, 'Amplifying the global value of Earth observation,' May 2024.

산업 혁신을 주도할 EO 데이터의 핵심 기능



01 소비자 경험

날씨 예보·대기질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가치 향상



02 조기 경고

홍수·산불 등 재해 감지로 대응 및 복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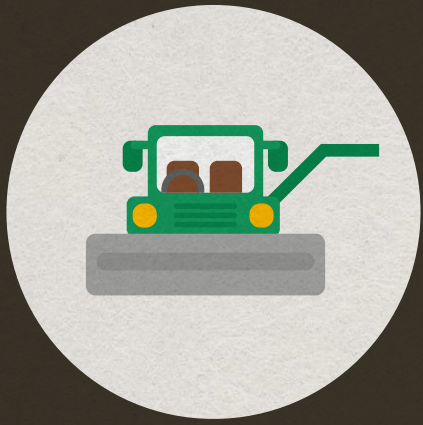
03 환경 영향 감시

환경 규제 준수 검증 및 영향 모니터링



04 사후 분석

비상 대응 및 피해 범위 평가 지원



05 정밀 농업&수산업식

재생 농업 최적화 및 수확량 모니터링



06 경로 최적화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물류·수송 경로 선정



07 입지 선정

인프라 및 운영 부지의 효율적 위치 분석



08 공급망 모니터링

국제 무역 및 생태 변화로 공급망 투명성 확보



09 취약성 분석

기후변화·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 평가

EO 데이터의 잠재력 극대화 전략

지구 데이터의 도달 범위 확대

➤➤ 글로벌 채택 촉진 및 산업 성장 가속

최종 사용자와 공동 솔루션 개발

➤➤ 맞춤형 솔루션으로 사회·경제적 가치 극대화

환경정보 공개의 신뢰 기반 구축

➤➤ 규제 대응 및 투명성 확보

확장 가능한 상업 서비스 투자

➤➤ 공공부문의 투자로 EO 산업 확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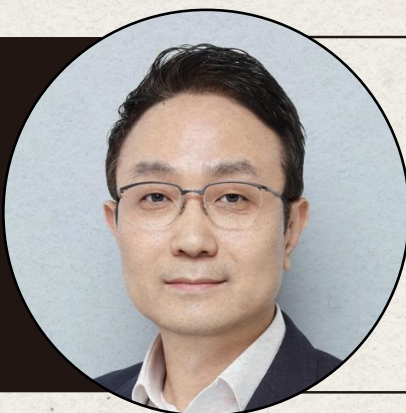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정부 및 공공부문(Government & Public Service)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정부 및 공기업 부문 전문가들은 정책 제도 수립, 산업 활성화 파급효과 분석,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동현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3015
@ donghyuhan@deloitte.com

김정열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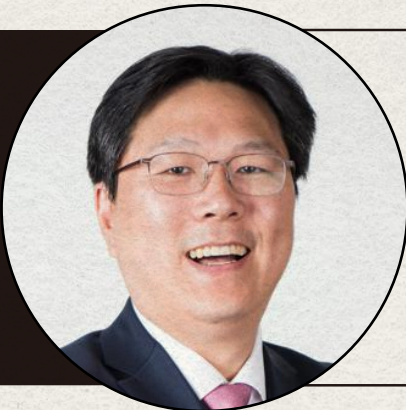
정부 및 공공부문 |
경영자문 부문(Deal)



☎ 02 6099 4490
@ jeongykim@deloitte.com

하성호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351
@ sunghha@deloitte.com

송호창 파트너

정부 및 공공부문 |
세무자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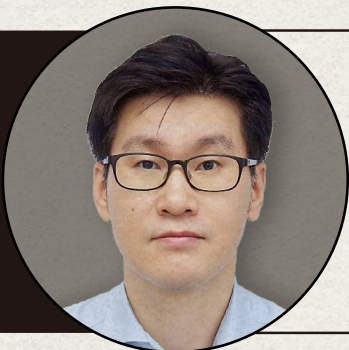
☎ 02 6676 2004
@ hochsong@deloitte.com

한국 딜로이트 그룹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팀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전략수립, 회계감사, 재무자문, IT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우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 Data 본부는 100여 명의 기술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엔지니어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각 산업에 특화된 AI 최적화 방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산업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02 6676 3227



hogchoi@deloitte.com

박형곤 파트너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더



02 6676 3684



hypark@deloitte.com

AI & Data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nology,
Data Analytics | 컨설팅 부문



02 6676 2732



chanj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AI & Analytics |
컨설팅 부문



02 6676 3767



sholee@deloitte.com

정창모 수석위원

AI 서비스 | 컨설팅 부문



02 6676 3288



changjung@deloitte.com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경흠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Nicola Weir 파트너

공공 및 금융 ESG | ESG센터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공시, 공공 및 금융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h@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김사현 Director

sahe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